

'슈퍼 마리오 갤럭시 in 전주' 펼쳐진다

전주국제영화제, 영화·게임 세계관 결합 체험형 콘텐츠 운영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관광객도주시, 유니버설 픽처스와 함께 특별프로그램 '슈퍼 마리오 갤럭시 in 전주'를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29일 개봉 예정인 '슈퍼 마리오 갤럭시'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가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등 전주시 주요 관광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다채롭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화 세계관을 반영한 스페셜 팝업 스토어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메가박스 전

주객사 1층에 마련된다.

마리오, 루이지, 피치, 쿠파 등 기존 인기 캐릭터와 함께 요시, 쿠파주니어, 로젤리나 등 신규 캐릭터까지 더해져 확장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전 세계 흥행 수익 13억 달러를 기록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아외 상영회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메가박스 전주객사 1층 아외 상영존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무료 상영된다.

오거리문화광장에는 높이 8m 규모의 초대형 요시알 인플래터블을 활용한 포토존이 설치된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 돌담길에는 별뿔별 보트 포토존이 조성돼 영화 속 장면을 배경으로 색다른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슈퍼 마리오 갤럭시' 포스터

/김재훈기자

전주문화재단, 조충연 예술감독 선임

전주문화재단이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실감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실감미디어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을 총괄할 예술감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조충연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조충연 선임 예술감독은 미디어아트와 예술·기술 융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공간 기반 미디어 콘텐츠 기획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창작자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로 재직하며 미디어아트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감독은 앞으로 팔복예술공장을 거점으로 △실감예술산단 조성 및 융합콘텐츠 지원사업 설계 △실감미디어 콘텐츠 개발 자문 △창작 프로젝트 운영 및 확산 전략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예술감독 선임을 계기로 팔복예술공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외 커브드 LED '미디어정원'은 도시 상징성을 담은 랜드마크형 콘텐츠로 조성하고, 내부 4면 LED 공간 '디큐브'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작-검증-확산'이 선순환하는 복합형 실감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김재훈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국악뮤지컬 '별이와 무지개다리'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서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3시, 어린이 국악뮤지컬 '별이와 무지개다리'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강아지별 '구수랄라'에서 지구로 떠나는 강아지들의 여정을 그린 따뜻한 판타지 이야기로, 반려견 '별이'와 소녀 '지율이'의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을 담은 작품으로, 강아지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랑과 생명의 소중한, 책임의 의미를 따뜻하게 풀어낸다.

국악과 창작 안무, 노래, 영상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 형식으로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고, 특히 무지개다리, 구름언덕 등 상징적인 공간을 무대 위에 구현해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공연 2시간 전부터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해 어린이날 공연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공연 시간은 60분이며 36개월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고, 사전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4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수 황가람의 대표곡 '나는 반딧불', '미치게 그리워'는 오케스트라와 황가람 협연으로 선보이며 '나의 내일을', '아파트', '붉은 노을'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부안마실축제 공연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4일 오후 3시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아외 메인무대에서 '부안의 내일은 희망이다-나는 반딧불, 함께라서 빛난다'를 주제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기관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선정된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가수 황가람의 대표곡 '나는 반딧불', '미치게 그리워'는 오케스트라와 황가람 협연으로 선보이며 '나의 내일을', '아파트', '붉은 노을'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2)

무당이 되고 싶어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외삼촌과 외숙모도 반가운 눈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집에는 외삼촌의 자녀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이십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우글거렸다.

외조모는 근동에서 꽤 이름 있는 무당이였으며 외조모와 외삼촌 내외도 무업을 하고 있었다.

외조모는 이 동네 저 동네 굿을 하러 다니다가 부모가 모두 희생되어 풀바 줄 사람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외삼촌 내외도 외조모의 일에 반대하지 못하고 옆에서 거들고 있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나 없는 아이들이나 다 같이 하늘님의 자식들이거늘 밥을 굶고 잘 곳이 없어서야 되겠냐."

외할머니의 생각은 단순했다. 외조모 고향은 정읍 입암이다. 이곳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에서 태어난 차경석은 정읍 입암에서 보천교를 열었다.

보천교는 무당과 굿패에 친밀했는데 굿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차경석은 많은 도움을 줬다. 외조모는 무당이면서도 보천교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굿을 한 뒤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이외에는 절대 재물을 탐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나 일정한 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따라 곡식을 받았다.

외조모와 외숙모 내외가 고아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혀서 재워준다는 소문이 나자 외조모의 당골판에서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양식과 아이들 옷가지들을 가져왔다.

명희도 외가에 온 날부터 외조모와 외숙모를 도와 밥을 하거나 아이들 옷을 빨래하고 잠자리를 봐주는데 손을 보냈다. 하루를 쉬 새 없이 보내는 명희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했다.

가끔 가족들이 참혹하게 사살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냈다.

"할머니, 저는 좋은 무당이 되고 싶어요. 무당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의 빚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외조모 입암택은 명희를 꼭 안아줬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영이 깃들어 있단다. 나무와 돌, 닭이나 개, 입고 있는 옷, 신발, 여기 있는 밭그릇에도 모두 영이 있지. 이런 만물도 우리 사람 이상으로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라. 사물들을 볼 때나 다룰 때는 항상 조심성 있고 귀한 마음으로 다루고 바리바야 하는 것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다. 사람을 대할 때는 더 말해서 뭐하겠느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손해 보면서 살면 될 것을. 나만 귀하게 여겨져 타인을 귀하게 여겨려 하지 않으니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천지신명 앞에, 하늘님 앞에서는 모두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마음을 왜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야."

입암택은 명희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명희의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명희가 외가에 온지 보름 가까이 흐른 무렵 이른 새벽, 외조모와 외숙부는 굿에 쓰는 무구와 징과 장구를 보파리에 싸면서 명희를 불렀다.

"황천에 가서. 가서 약식으로나마 굿을 해주자. 나중에 세상이 더 평온해지면 그때 크게 열어주기로 하고, 어서 채비를 차려라."

외조모가 옷을 갖춰 입으며 말했다. 명희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눈에 고였다. 외조모에게 한번쯤 부탁을 하려 했는데 먼저 나서서 해주신다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외숙모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 남고 외할머니와 외숙부, 명희는 각기 무구와 악기와 장구를 보파리에 싸서 이고 지고 나왔는데, 걸어가기에 너무 먼 거리라 미리 말을 해두었는지 마을 사람이 달구지를 집 앞에 내놓고 있어 세 사람은 달구지를 물건을 싣고 같이 탔다.



전주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